5·18 창작 뮤지컬 '광주' 초연 무대 오른다

라인업 공개… '님 행진곡' 대중화 일환
특수부대 박한수 역 민우혁·테이·서은광
시민군 윤이건 역 민영기·김찬호 연기
10월 서울아트센터·12월 광주서 공연

1980년 5월, 독재자의 죽음을 틈 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모종의 시나리오를 짠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 진압하고 정권 찬탈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이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폭력 시위를 조장할 목적을 띤 특수 군인들이 광주에 투입된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편의대'. 각종 모략을 일삼는 편의대와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순수한 의지가 충돌하는 가운데 광주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전국화를 위해 제작된 창작 뮤지컬 '광주'의 캐스팅 라인업이 공개됐다.

제작사 ㈜라이브는 6일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민우혁, 뮤지컬 '명성황후'의 테이, 뮤지컬 '웃는 남자'의 민영기 등이 뮤지컬 '광주'의 초연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작품은 국가권력의 폭력과 계략에도 굴하지 않는 시민과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폭력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투입된 한 편의대원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민주,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담아낼 예정이다.

80년 5월 당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치열한 항쟁으로 금남로를 적셨던 시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 만큼 출연진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집중됐다.

극 중 마지막 임무를 위해 광주에 파견된 특수부대 편의대원 박한수 역에는 민우혁, 테이, 서은광이 캐스팅됐다.

'광주'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인 박한수는 혼란을 야기하려는 목적으로 시민들 틈에 잠입하지만, 극 중 인물인 윤이건과 문수경을 만나 무고한 시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연행되는 참상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이념의 변화를 겪게 된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레미제라블' 등 대형 뮤지컬을 비롯해 TV와 무대 등에서 활약중인 민우혁은 디테일한 감정 연기로 박한수의 내면을 몰입도 있게 전달할 전망이다.

섬세한 보이스와 다채로운 연기 스펙트럼으로 뮤지컬 '명성황후', '여명의 눈동자' 등에 출연한 테이는 목도한 사실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박한수의 고뇌를 그만의 색채로 오롯이 담아낼 예정이다.

또 아이돌 그룹 비투비 (BTOB) 메인 보컬로 활동중인 서은광도 박한수를 연기한다. 탄탄한 가창력을 기반으로 뮤지컬 '햄릿', '몬테크리스토' 등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서은광은 박한수를 통해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더한다.

시민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데 기여한 야학교사인 윤이건 역은 민영기와 김찬호가 연기한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는 카리스마와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동시에 지닌 윤이건은 '님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를 모티브로 한 인물로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역할이다.

뮤지컬 '웃는 남자', '모차르트!' 등에서 활약하며 풍부한 성량과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한 민영기는 그 간의 내공을 발휘해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윤이건 역을 소화해낼 전망이며, 입체적인 캐릭터 해석과 매력적인 보이스 컬러로 뮤지컬 '마리 퀴리', '그림자를 판 사나이' 등에 출연한 김찬호는 특유의 섬세한 연기로 또 다른 매력의 윤이건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브는 이날 공개한 박한수, 윤이건 캐스팅 이외에도 작품을 이끌어갈 또 다른 주인공인 정화인 역과 문수경 역 등 작품 주요 배역의 캐스팅 라인업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박한수, 윤이건, 정화인, 문수경 역 등을 포함해 28명의 배우들이 오르며, 12인조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도 만날 수 있다.

한편, 뮤지컬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라이브㈜가 주관하며 '2019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연출은 고선웅 연출가가, 대본은 창작그룹 안필단이 맡았고 광주문화재단, ㈜라이브, 극공작소 마방진이 공동제작한다.

뮤지컬은 오는 10월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선보이며, 12월 11~13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만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2020 광주성악콩쿠르'

13~23일 참가자 모집

광주 출신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정율성 음악을 기리고 성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2020 광주성악콩쿠르' 참가자를 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올해 13회째를 맞는 성악콩쿠르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총상금은 1위 1500만 원 등 모두 3800만원이며 본선 입상자들에게는 입상자 콘서트 공연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자격은 만 20세 이상 만 35세 이하 성악을 전공한 내국인이며 성악콩쿠르 홈페이지(http://vmcg.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경연은 오는 8월 1일 1차 예선을 시작으로 8일 2차 예선, 15일 본선, 8월 21일에는 입상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스트리아 국립오페라극장 전속 성악가로 활동한 심인성(베이스 1996년), 한국인 테너 최초 이탈리아 라 스칼라 오페라극장에서 주역 가수로 데뷔해 유럽의 '한국인 칼라프'로 극찬받은 이정원(테너 1996년), 스위스 바젤 극장 주역가수로 활약하며 스위스 현지와 유럽언론에서 극찬을 받은 서선영(소프라노 2006년) 등 광주성악콩쿠르 수상자들 수준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내는 물론 유학 중인 성악도들의 접수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JTBC '팬텀싱어3' 결승 진출자인 길병민(베이스 2015년), 박기훈(테너 2017년), 김민석(테너 2018년), 정민성(바리톤 2019년) 등도 광주성악콩쿠르에서 신진 성악 유망주로 눈도장을 받은 수상자들이다. 문의 062-670-74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아름다운 시절'

영산강문화관, 오늘부터 조각가 조솔 초대전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영산강문화관(관장 김창호)이 첫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휴관이 지속되면서 지역민들이 전시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진행하는 기획이다.

7일부터 만날 수 있는 초대 작가는 조각가 조솔 작가다. 전남대 미술학과, 러시아 성-뻬쩨르부르크 국립 레핀 미술아카데미 조소과에서 공부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국립마논-위구르 예술대학원에서 모뉴멘트-장식예술을 전공한 조 작가는 대리석을 주 소재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름다운 시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인체 해석을 기반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새, 꽃, 나비 등 자연 요소를 함께 형상화해 인간의 자유로움을 표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조각의 근본, 아름다움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그의 작품은 흙과 대리석, 나무 등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를 이용해 자연 본질로의 회귀를 이야기한다. 또 인체와 LED조명을 결합한 실험적 작품을 통해 인체 특정 부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재료가 갖는 특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조 작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동아인재대학 도예디자인과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전국 조각가협회, 광주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pression 1 Marble 2019'

이번 온라인 전시는 영산강문화관 카페 및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정기강좌

8월 2일까지 카페 노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81기 정기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8월 2일까지(오후 7시 30분)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 카페 노블에서 열리며 시민대학, 글쓰기교실, 독서, 영화동아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먼저 월요일에는 시민대학 시간으로 서명원 교수가 '인간, 그 갈등의 심연을 보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화요일에는 글쓰기 교실로 명혜영 교수가 '인문적 글쓰기로 '나'를 만나다'를, 목요일에는 신우진 이사장이 독서독아리 '묵독회-십인십책'을 진행한다. 금요일에는 시민대학특강 시간(10·24일)으로 박성천 박사가 '지역공동체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 토요일(오후 2시) 영화동아리 시간에는 명혜영 교수와 진정한 씨가 '영화로 읽는 인문학-삶, 여성, 가족, 개인'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 시간을 갖는다.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 강좌 무료다. 기수별, 강좌별로 등록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62-412-879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227-9940 062)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752-9940